



지난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선포식' 개막행사. 전남도는 도내 27개 지정 관광지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도, 노후 관광지 정비 나선다

27곳 중 21곳 지정 20년 넘어 시설 노후...즐길거리 등 트렌드에 뒤쳐도, 현황 조사·컨설팅 마무리...액티비티 등 7개 주제 대응 전략 마련

전남도내 지정 관광지는 27개소 가운데 21개소(77%)가 지정 20년을 넘겨 시설이 노후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최신 관광트렌드에 뒤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관광객 발걸음이 뜸해지면서 빈 점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 기여도 역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산업을 미래 주축산업으로 삼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전남도가 우선 이들 지정 관광지에 대해 각각 정비 및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남도는 이들 노후 지정 관광지를 재활성화시키기 위해 현황 조사 및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지

난 14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광지별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광지의 명확한 테마를 통한 차별적 관광경험 제공 ▲미디어 아트 등 야간 관광자원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 유치, 특성화 ▲액티비티 등 관광객 참여 콘텐츠 강화 등 7개 주제로 진행됐다. 또 나주호 플로팅 워크웨이, 무안 하늘에 핀 연꽃정원, 완도 신지 샌드 드로잉 비치, 진도 펫 워크웨이 등 27개 관광지마다 세부 콘텐츠를 제안하고 시·군 참석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화순 도곡온천 관광

지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43억원을 들여 총 14개소의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광지 재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석호 전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이번 컨설팅은 최신 관광트렌드를 지역 관광자원과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다"며 "지정 관광지는 지역의 소중한 관광자원이자 관광역량을 끌어올릴 요소로서, 이번 설명회가 재활성화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되도록 시군과 함께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태극정부관광청장, 미얀마·스페인·태국·베트남 등 9개국 주한대사, 지역 국회의원, 박우량 전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관광지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 목재 산업 활성화 머리 맞대

전문가 간담회서 생산·가공·유통·이용 활성화 모색

전남도가 지난 14일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목재산업체,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목조건축협동조합 등 현장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재 생산·가공·유통·이용 활성화 모색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남의 목재 유통·이용 실태와 목재산업 정책을 공유하고, 목재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과 협력 방안을 집중 토론했다. 또 수입목보다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국산재 활용 촉진을 위해 지역 비교우위 자원인 편백과 난대림을 활용한 건축소재 생산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목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벌목 기술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체계적 목재 수확을 위한 점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3차 전남도 목재이용 지역중합계획에 반영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목재산업 육성과 목재문화 확산을 위해 ▲화순 목재산업단지(2022-2024년·50억) ▲강진 목재전환도시(2022-2025년·50억) ▲나주 산림자원연구소 목조건축실연사업(2024-2027년·130억) ▲친환경목재뉴이티(매년 5개소·10억 내외) ▲목재문화체험장 운영(8개소) 등 공공부문 선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목재산업계의 안정적 원료 공급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높이는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장애인 IT보조기기 체험전

도, 오늘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전남도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17일부터 이틀간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회에선 장애인이 실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선택하도록 상담과 신청 안내에 나섰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전문업체 22개사가 참여해 모두 100여 종의 제품을 소개했다. 장애인이 정보통신 기술에 쉽게 접근하도록 특수 보조기기를 저렴하게 보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현재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누리집(www.at4u.or.kr)이나 시군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 더 달린다

도, 기업 현장 탐방·면접·채용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2회 추가

전남도가 지난 14일 나주 혁신산단에 입주한 에너지밸리기업 동우전기(주), ㈜동남, ㈜위테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를 운영해 지역 유망기업 일자리 연계 지원에 나섰다.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는 취업 희망자를 모집해 기업 현장 탐방 후 면접을 거쳐 채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남도 알짜배기 취업 지원사업이다. 이번 일자리희망버스는 한국전력공사와 협력, 에너지밸리기업 구인난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전남일자리종합센터와 나주시일자리지원센터 전문직업상담사가 구직자 대상 1대 1 일자리 상담을 통해 기업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 20명을 발굴해 진행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에 앞서 지난 5월 16일에는 조선업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일자리희망버스를 운영, 적합한 구직자를 발굴·연결해 목표 인원 7명보다 많은 11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냈다. 전남도는 올해 2회 더 추가 운영할 계획이며, 일자리 유관기관, 직업훈련기관과 협력해 구직자-기업이 더욱 만족하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일자리희망버스 사업에 참여한 구직자가 최종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일자리 종합 지원 서비스를 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TP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협약체결식

전남테크노파크(이하 전남TP)가 지역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3일 '2024 전남 지역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1차 선정기업 대상 협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남도가 추진중인 이 사업은 도내 기업의 성장단계, 주축산업 연관기업 대상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잠재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역 스타기업, 주축산업 품목육성기업 등

4개 분야로, 지원내용은 연구개발 전 단계(PRE-R&D), 연구개발 후단계(POST-R&D) 등 2개 프로그램을 구성돼 있다. 이날 협약체결식에는 (재)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진흥본부, 잠재기업 (주)대불용접산업, 스타기업 좋은영농조합법인, 선도기업 (주)성성히스코 등 77개사 9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한 기업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기획,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인증, 특허, 컨설팅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성·가족과 함께하는 전남 행복시대 '온힘'

도 정책자문위 여성분과, 보육·돌봄 등 저출생 극복정책 논의

전남도가 지난 14일 도청 정철실에서 2024년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 여성분과 회의를 열어 '따뜻한 동행, 여성·가족이 함께하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보육, 가족, 일·생활 균형 분야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다. (사진) 여성분과위원회는 김은숙(전남여성정책포럼 상임대표) 위원장과 보육 관련 대학 교수, 협회·단체장 등 총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따뜻한 가족 행복한 전남 만들기, 일·생활균형 실천 사례 등을 분석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 '맘(MOM)편한 전남형 시간제보육 운영'의 경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일시적 육아 공백 해소 등을 위해 울하반기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출생·육아·가족 정보검색 및 신청·상담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남 아이키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목포·순천 희망디딤돌센터를 활용해 주거 및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드림하우스 운영' ▲병원 내 입원아동 일대일 돌봄 서비스 '입원 아이, 두 케어(I DO Care)'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1509001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